

Beyond Fair & Exhibition
Building Enhanced Family Experiences, BeFe



36th BeFe BABYFAIR PRESS KIT

[자료 문의]

(주)베페 황동욱 대리 ☎ 010-5359-2714 / dawnhwang@befe.co.kr
플렌얼라이언스 권재희 이사 ☎ 010-6231-5771 / janekwon@planall.co.kr



'우리 아이만의 컬러를 만든다! 컬러풀 베이비 위한 육아 박람회' 제36회 베페 베이비페어 개최... '육아 컬러링' 제안

- 오는 8월 15일(목)~18(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
- 아이들의 컬러와 개성 존중하는 '컬러풀 베이비' 테마로 선정하고 '육아 컬러링' 제안
- '인스타 핫템 구입하고 무료 육아 클래스로 정보 얻고' 베페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눈길



(주)베페가 주최하는 국내 대표 임신·출산·육아 박람회 '제36회 베페 베이비페어(이하 베페)'가 서울 코엑스에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개최된다. 베페 베이비페어는 국내외 임신, 출산, 육아, 교육 관련 450여개 브랜드를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박람회다.

매회 트렌디한 육아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해온 베페는 이번 36회에서 내 아이에 특별함을 더해줄 수 있는 육아법과 육아템을 찾는 젊은 부모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 아이템'으로 대표되는 유행과 대세에서 벗어나 아이들 고유의 컬러와 개성을 존중하는 '컬러풀 베이비'를 전시 테마로 선정하고, '육아 컬러링'이라는 육아법을 제안한다.

베페가 제안하는 '육아 컬러링'은 육아에 '우리 아이만의 색깔을 입힌다'는 의미로 유행과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닌 아이에게 맞는 특색 있는 육아 스타일을 찾아가는 육아 방식이다. 아이들의 취향을 찾고 창의적인 감성 발달을 위한 문화 체험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베페는 '우리 아이만의 컬러를 만든다! 컬러풀 베이비'를 테마로 온라인 공식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8월 18일까지 베페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베페 베이비페어의 컨셉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총 150명에게 유모차, 카시트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인스타그램 인기 셀러들을 모은 '베페 SNS 마켓', 특색 있는 알짜 육아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브랜드 클래스', 전시 기간 동안 매일 실용적인 증정품을 제공하는 '베페 20주년 기념 선착순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현장에 참석한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베페 관계자는 "'감성' 문화 등 개인의 취향이 중요해지는 만큼 육아에서도 우리 아이만의 컬러와 개성에 맞는 육아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표현하는 '컬러풀 베이비'를 전시 테마로 선정했다"며, "다양해지는 육아 취향을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예정이니 젊은 부모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베페 베이비페어는 국내 유아용품 전시회 중 유일하게 국내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간 거래(B2B)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아용품 대표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전시 기간에도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국내 유통 상담회' 진행을 통해 참가 기업들의 유아용품 판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끝]

행사 개요

36th BeFe BABYFAIR 8.15 - 8.18 COEX

- **일시** : 2019년 8월 15일(목)~8월 18일(일) / 10:00~ 18:00
- **장소** : 삼성동 코엑스 Hall A,B
- **규모** : 국내외 200여개사 1,000부스 (18,378m²)
관람객수- 10만명 이상 예상 (임신부, 아기엄마/ 아빠, 조부모 등 친지, 업계 관계자)
- **주최** : ㈜베페
- **후원** : 서울특별시
- **부대행사** : 베페 SNS마켓, 브랜드 클래스, 국내 바이어 유통상담회,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 **전시품목**

태교용품	태담, 태교관련 도서, 음반, 영상콘텐츠
임산부용품	임부복 및 속옷, 피부 보호제, 보조식품, 임산부의료기기
임산부 서비스	산모교육프로그램,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건강관리서비스
출산용품	의류, 침구, 영유아 전용 스킨케어 및 기타용품
영유아식품	분유, 이유식, 생수, 음료수, 보조식품
영유아 서비스	제대혈은행, 스튜디오, 생활가전, 신생아보험, 베이비시터, 기념소품
안전용품	유모차, 캐리어, 카시트, 보행기, 안전용품, 아기방꾸미기, 영유아 가구
교육콘텐츠	지능개발용품, 외국어 교육프로그램, 놀이교구, 코딩완구
스마트&리빙	IP콘텐츠, 스마트 유아기기, 친환경 리빙제품

(주)베페(BeFe) 기업소개

(주)베페는 1999년 7월 설립되어 국내 최초로 개최한 임신 출산 육아용품 전시회를 포함 다양한 전시/ 컨벤션 기획 및 운영, 온라인 비즈니스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시/ 컨벤션 전문기업이다. 2011년 6월에는 임신 출산 육아 산업과 문화, 교육 사업 등을 아우르는 임신 출산육아 토탈 브랜드로 진화하기 위해 '베페'라는 통합 브랜드를 발표하고 사명도 (주)베페로 변경했다.



(주)베페는 기존 전시회인 베페 베이비페어를 기반으로 '온라인 베페', '모바일 베페', '베페몰', '베페TV' 등 전시와 온라인 사업을 연계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베페 맘스쿨', '태교 음악회' 등을 통한 임신 출산 육아 전반의 문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면서 임신 출산 육아의 토탈 마케팅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왔다.

베페(BeFe)란?



베페는 'Beyond Fair & Exhibition', 'Building Enhanced Family Experiences'의 줄임말로 (주)베페의 고유 사명이자 상표권을 가진 브랜드명이다. (주)베페는 베페 베이비페어 전시회를 넘어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기업으로 점차 발전해 가고 있다.

(주)베페는 '베페 베이비페어'의 주최사로 2000년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35회 걸쳐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제 17회 이후부터는 매회 평균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국내 최고, 최대 규모 전시회로 성장해 왔다. 오는 8월 15일 개최되는 제 36회 베페 베이비페어 에서도 200여 개사, 450여개 브랜드, 1,000개 부스의 규모로 기존 명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베페 베이비페어는 국내 퍼블릭 전시회 중에서 최초로 국제 전시 협회인 UFI (The Global Association of the Exhibition Industry) 국제 인증을 획득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한국 전시산업 발전 대상' 우수 브랜드 전시회 부문에서도 최우수상 3회, 대상 1회를 수상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AFECA 어워즈 2018' 에서 소비재전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주)베페를 이끌고 있는 이근표 대표는 지난 2009년 국내 전시산업 선진화에 공적이 현저한 모범

경영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 1회 전시산업발전유공자 포상'에서 공로상 수상에 이어 '제5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는 전시업계 대표로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이러한 성과는 베페 베이비페어의 성공을 기반으로 베이비 포털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임신부 교육까지 그 분야를 확장시키며 육아 산업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주)베페의 집념이 이뤄낸 성과다. 1990년부터 10년간 전자신문사에 근무하면서 탁월한 기획력으로 각종 IT전시회, 컨퍼런스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해온 이근표 대표. 그는 1999년 (주)베페를 설립, 베페 베이비페어를 기획해 참신한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으로 전시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베페는 연중 언제 어디서나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보를 얻고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와 쇼핑몰인 베페몰(mall.befe.co.kr)을 운영 중이며, 각각 2014 웹사이트 Award 와 웹 어워드 코리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전시사업 및 웹 비즈니스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어 2014년 7월에는 인터넷 방송 '베페TV' 개국을 비롯, 베페 담당자이자 아빠들의 솔직한 육아 이야기를 담은 유튜브 채널 '빠빠튜브' 운영까지 전시와 온라인 사업을 연계한 새로운 서비스로 기존 고객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주)베페(BeFe) 주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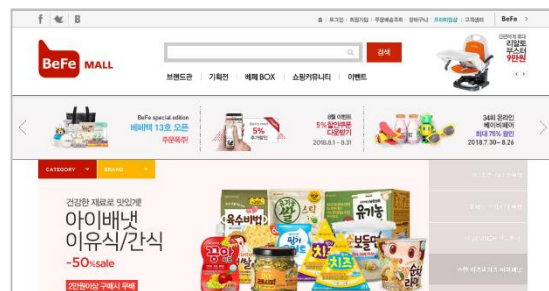
- 전시, 컨벤션 관련 종합 서비스로 국내 전시산업의 리딩 기업으로 자리매김
- 임신, 출산, 육아용품 멀티 플랫폼 '베페 온라인', '베페 모바일' 운영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트렌드와 정보 전달하는 '매거진 <베페>', '웹진 <베페>' 발행
- 예비맘 위한 교육 프로그램 '베페 맘스쿨', '태교 음악회' 등 각종 문화행사 활발

국내 임신 출산 육아용품 전시회의 새 역사 쓰다

(주)베페(대표 이근표, www.befe.co.kr)는 1999년 7월 설립되어 다양한 전시회 주최, 전시·컨벤션 기획 및 운영, 온라인 비즈니스 등 전시·컨벤션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시·컨벤션 전문기업이다. (주)베페는 2000년부터 '베페 베이비페어'를 36회에 걸쳐 개최하며 이제는 매회 평균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국내 최고·최대 규모 전시회로 성장시켜 왔다. 이처럼 우수한 전시 운영 노하우와 고객 서비스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한국 전시산업 발전 대상' 우수브랜드전시회 부문에서 2008년, 2009년, 2011년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2018년 대상 수상까지 국내 전시산업의 리딩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4년 2월에는 국내 퍼블릭 전시회 중에서 최초로 국제 전시 협회인 UFI (The Global Association of the Exhibition Industry)의 국제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AFECA 어워드' 소비재전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임신출산육아 멀티 플랫폼, 베페 웹사이트와 베페몰 운영

베페는 지난 2007년 8월 임신, 출산, 육아용품 전문 플랫폼인 베페 온라인 사이트를 오픈 했다. 전시회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관련 기업과 관람객들이 1년 365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육아를 하는 부모들의 육아용품 정보에 대한 니즈를 충족하고, 육아용품 시장을 활성화시켰다.



특히 베페 홈페이지에서 유·무료 체험단 이벤트, 브랜드보드 및 신상품 소개 페이지 등 소비자들이 구매 전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정보 제공 및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혔다. 2009년 1월에는 온라인 쇼핑몰인 베페몰을 오픈하여 신상품전, 체험

상품전 등 다양한 기획전을 진행해 소비자들에게 전시회만큼의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창구를 통해 소비자들은 임신 출산 육아 교육에 대한 다양한 상품과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고, 육아용품 공동구매와 여러 이벤트를 통해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도 있다. 베페 베이비페어 참가기업은 전시를 통한 사전/사후 마케팅이 가능해지면서 참가 효과가 점차 극대화됐다. 주최사인 베페는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여 피드백을 얻을 수 있어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매년 베페 웹사이트 회원 수 및 방문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누적 회원 120만여 명의 온라인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 참가 기업들의 홍보 효과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베페몰의 경우 사용자가 보기 편하고 브랜드, 사용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메뉴 등으로 지난 2013년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가 개최한 '웹어워드 코리아'에서 종합 쇼핑몰 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다. 베페몰은 이제 단순 쇼핑 플랫폼을 넘어 커뮤니티 쇼핑공간의 장으로 특히 모바일 및 태블릿 PC 사용에 익숙한 베페몰 고객을 위해 어느 디바이스에 관계없이 쉽고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된 것이다.

베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런칭

베페 베이비페어 방문자 중 모바일 회원으로 입장한 방문객은 2010년 초기 앱 출시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을 통한 입장객은 약 44%로 초기 17%에서 약 2.5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2018년 기준) 현재 안드로이드 및 애플 버전 모두 운영 중이며 행사 기간 내 고객은 이벤트, 상품할인, 상품증정 등 다양한 브랜드의 쿠폰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 어플리케이션 내 탑재된 전시회 안내 지도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브랜드를 손쉽게 찾아 관람할 수 있어 편리하다.



홈쇼핑 인터넷 방송, 유튜브 채널 런칭

2014년 7월, 베페는 임신 출산 육아 교육 정보를 많은 부모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방송 채널인 '베페TV'를 개설했다. 베페는 육아용품 판매는 물론 예비맘과 초보맘들을 위한 육아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2018년에는 유튜브채널 '빠빠튜브'를 오픈 했다. 공식 홍보영상을 비롯해 아빠의 입장에서 들려주는 생생한 육아 이야기로 많은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베페가 진행하는 임신출산 육아관련 문화사업

지난 2007년 10월 처음 개최된 이래 현재까지 총 108회 (2019년 7월 기준) 진행된 '베페 맘스쿨'은 매회마다 국내외 임신, 출산, 육아 분야 의사와 전문가가 함께하며 현재까지 약 5만여 명의 임신부가 거쳐 간 교육과정이다.



베페 맘스쿨은 매월 400명의 임신부와 예비 부모를 초청해 진행하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무료 강좌이다. 베페 맘스쿨은 신생아 육아법을 비롯 임신부가 궁금해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400명 모집에 매회 2500여 명 이상이 신청, 선정 인원 중 90% 이상의 참석률을 보이는 등 예비 엄마들의 입소문을 타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외에도 2011년 7월, 미혼모 돕기 성금 모금을 위한 베페 나눔 유모차 콘서트를 시작으로, 임신부를 위한 태교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신출산 육아관련 트렌드와 정보를 전달하는 '베페 매거진', '베페 웹진' 발행



베페는 연 2회 동명의 매거진 '베페(BeFe)'를 발행하고 있다. 2012년 8월 창간한 베페 매거진은 관람객 편의를 위해 전시회 전용 매거진으로 등장, 전시회 참여 브랜드 소개, 육아 콘텐츠, 육아용품 화보와 참가기업 브랜드 제품 구매 시 사용 가능한 각종 쿠폰을 동봉한 모습이었다. 유아용품부터 패션, 뷰티, 문화예술, 가전, 리빙제품에 이르기까지 에디터들이 추천하는 신제품 및 리뷰를 매거진 리포트로 만나볼 수 있는 것도 프리미엄 육아 정보 매거진 '베페(BeFe)'의 매력 중 하나다.

특히 베페 매거진에는 신제품 정보 및 대형 전시장 지도와 참가 기업 브랜드의 추가 할인 쿠폰북을 수록해 전시장 내 제품 구입 시 실질적 혜택도 제공한다. 2019년 8월 15일(목)부터 18일(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36회 베페 베이비페어 입장 시에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베페 매거진과 함께 2012년부터 발행된 웹진 '베페(BeFe)'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정보 및 최신 트렌드를 담아 매월 베페 온라인 사이트 회원을 대상으로 발행된다. 구독 희망자는 베페 홈페이지에 가입 시 기재한 이메일로 웹진을 받아볼 수 있으며, 홈페이지 내 웹진 베페 메뉴를 통해서도 콘텐츠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베페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매거진 '베페(BeFe)'와 웹진 '베페(BeFe)'는 실제 예비엄마·아빠 및 육아중인 부모로 구성된 베페 명예기자들이 육아관련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업계 최초 SNS 셀러 참여한 '베페 SNS 마켓'과 플리마켓 컨셉의 '베페마켓' 진행

국내 최초의 베이비페어인 '베페 베이비페어'를 통해 대한민국 임신, 출산, 육아 문화를 이끌어 온 (주)베페가 온 가족의 즐거운 나들이를 위해 새로운 행사를 개최합니다.

전시회의 전문성과 규모, 플리마켓의 트렌디함, 축제의 즐거움까지 베페마켓에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꼬옥 눌러주세요!

11.28 - 12.1 수원컨벤션센터

베페 베이비페어는 매 회차마다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베페는 최근 SNS 상에서 상품을 거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육아 용품에서도 개성과 취향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지난 34회차부터 업계 최초로 인스타그램 인기 셀러들을 한 자리에 모은 '베페 SNS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진행하던 국내 소상공인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전시회 방문객들에게는 작지만 개성 있는 유아용품 브랜드를 소개하는 것이 목적. 이번 36회 베페 베이비페어에도 SNS 마켓을 운영하며 15개 브랜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다가오는 11월에는 수원컨벤션센터(SCC)에서 플리마켓 형태의 '베페마켓'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 '온 가족의 즐거운 나들이를 위한 행사'를 표방하며 기존 베이비페어보다는 트렌디하고 페스티벌적인 성격이 강한 행사로 구성될 예정이다.

해외진출 통한 국내 유아용품 수출 촉진 및 유망기업 판로 개척 지원

베페 베이비페어는 국내를 대표하는 유아전시회를 넘어, 세계 속에서도 주목 받는 전시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마다 전 세계 메이저급 유아용품 브랜드들의 상품개발자와 CEO들이 찾고 있으며, 베페는 이러한 전시회 노하우와 명성을 바탕으로 유아용품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베페는 2015년부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세계 유아용품 박람회에 한국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2014년 '중국 상하이 유아산업 전시회(CBME China)'를 시작으로 2017년과 2018년 독일 쾰른 유아 및 아동용품 전시회(Kind + Jugend), 올해 10월 라스베이가스 ABC 유아 박람회(ABC Kids Expo)까지 세계 3대 유아용품 전시회에 참여해 한국관을 운영하며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중국 상하이 유아산업 전시회(CBME China)'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연속 참가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 열린 '2019 중국 상하이 유아산업 전시회(CBME China 2019)'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경기중소기업연합회 FTA활용지원센터(GSMBA) 공동으로 역대 한국관 중 최대 규모인 43개사 59부스의 '통합한국관'을 구성해 749건, 약 1617만 달러 상당의 상담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또한, 2017년과 2019년 홍콩 유아용품 전시회(HK Baby Products Fair), 2019년 일본 도쿄 베이비 앤 키즈 엑스포(Baby & Kids Expo Tokyo JUNE)에 이어 올해 11월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인도네시아 출산·육아·유아용품전(IMBEX)에도 참여해 아시아 지역에서도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앞으로도 베페는 국내 우수 유아용품 업체들의 해외진출 및 수출증대를 위한 노력을 펼쳐 향후 다양한 국가에서 행사를 개최해 전시 수출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베페는 육아용품 업계의 내수시장 활성화는 물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업간 거래 (B2B) 서비스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에 2017년 제31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는 육아용품전시회 최초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총 8개국 41개사를 통해 약 7,800만 달러의 현장 수출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2018년 제 33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는 전년대비 확장된 규모로 총 13개국 48개사가 참석하여 약 860만 달러의 수출계약 실적을 달성했다



베페는 우수한 제품 및 브랜드를 보유한 국내외 참가기업의 국내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자 '국내바이어 유통상담회'를 진행한다. 지난해 34회

베페에서 업계 최초로 진행된 유통상담회를 통해 현장 입점 계약 20여 건이라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으며, 올해 35회 베페에서 진행된 유통상담회에서도 국내 대표 유통사 MD 30여 명을 초청하여 45여 개 참가사와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해 현장 입점 계약 30여 건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이번 전시 기간에도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국내 유통 상담회' 진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수출 마케팅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국제 비즈니스와 교류의 장소로서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시회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전시회 국고지원사업 한국관 수행 내역]

연도	전시회명(국문)	전시회명(영문)	기간	국가	지원기관
2019	인도네시아 출산·육아·유아용품전	IMBEX	1129-1201	인도네시아	KOTRA
	라스베가스 ABC 유아 박람회	ABC Kids Expo	1023-1025	미국	
	독일 유아 및 아동용품 전시회	Kind+Jugend	0919-0922	독일	
	중국 상하이 유아산업 전시회	CBME China	0724-0726	중국	
	일본 도쿄 베이비 앤 키즈 엑스포	Baby & Kids Expo Tokyo JUNE	0626-0628	일본	
	홍콩 유아용품 전시회	Hong Kong Baby Products Fair	0107-0110	홍콩	
2018	독일 유아 및 아동용품 전시회	Kind+Jugend	0920-0923	독일	
	중국 상하이 유아산업 전시회	CBME China	0725-0727	중국	
2017	독일 유아 및 아동용품 전시회	Kind+Jugend	0914-0917	독일	
	중국 상하이 유아산업 전시회	CBME China	0719-0721	중국	
	홍콩 유아용품 전시회	Hong Kong Baby Products Fair	0109-0112	홍콩	
2016	중국 상하이 유아산업 전시회	CBME China	0720-0722	중국	
2015	중국 상하이 유아산업 전시회	CBME China	0722-0724	중국	
2014	중국 상하이 유아산업 전시회	CBME China	0721-0725	중국	한국무역협회

베페 베이비페어가 전하는 “대한민국 육아 트렌드”

올바른 임신·출산·육아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베페는 연 2회 관련 전시회를 개최하며, 해당 시기 국내 육아분야 현상을 분석하고 트렌드를 주도하는 역할을 도맡아왔다. 최근 5년간 베페 베이비페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 육아시장 현황을 정리하고, 2019년 육아 트렌드를 미리 살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연도	회차 별 육아 트렌드	
2014년	25회(2014.01)	26회(2014.08)
	“팸 육아, 조부모 육아”	“공유 육아 + 8-pocket”
	젊은 부모 세대의 사회 경제적 문화적 환경 변화로 다시 떠오르는 황혼 육아, 육아 주체의 확장	부모, 조부모부터 삼촌, 이모까지 온 가족이 돕는 육아
2015년	27회(2015.02)	28회(2015.08)
	“옴니 육아”	“안심 육아”
	다양한 주체, 다양한 채널, 다양한 기능의 제품으로 육아환경 변화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육아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
2016년	29회(2016.02)	30회(2016.08)
	“Baby Effect”	“Family Balance”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이로 인해 파급되는 경제 사회 문화적 긍정 효과	아이의 탄생으로 다시 필요해지는 가정 내 균형, 행복한 육아의 시작
2017년	31회(2017.02)	32회(2017.09)
	“팩트육아”	“육아있는 삶, 볼로(B.O.L.O)라이프”
	육아 정보의 홍수 시대, 팩트를 적극 추구하는 육아로의 변화	아이만이 줄 수 있는 새로운 경험에 주목하며 일상 속의 참된 보람 추구
2018년	33회(2018.02)	34회(2018.08)
	“베페 케어”	“힙한 육아”
	임신, 출산, 육아, 교육 등 아이의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 제공	SNS를 적극 활용, 나만의 개성 있는 육아 라이프를 추구하는 트렌드 등장
2019년	35회 (2019.02)	36회 (2019.08)
	“하트 육아”	“컬러풀 베이비”
	아이의 발달과정, 취향에 주목한 예술친화적 체험형 육아스타일	유행과 대세를 벗어나 우리 아이에게 맞는 특색 있는 육아 방식을 찾으려는 트렌드 등장

[끝]